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 동 지 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부활절 메시지

어찌 의심하느냐!

내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진리를 판단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굳게 믿고 행하자.

부활의 진리가
불합리하다고 의심하지 말고
죽어야 사는 역설적 진리 속에
기독교 가치관이 정립되게 해야 한다.

오늘 부활 주일에
모든 의심을 버리고
부활하시어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민족과 국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시 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종윤 원로 목사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 II III부 예배 시 성찬식 찬양예배 시, 할렐루야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

하나님은 죄인 되어 도무지 희망이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이 성찬을 깊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자. 또한 부활절 감사헌

금과 금식헌금을 드린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 최형열 장로)가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베토벤 Ludwig van Beethoven 작곡)를, 지휘 류충기집사, 오르간 차주연 집사, 피아노 김양연 집사, 팀파니 윤주일 집사의 반주로 하나님과 성도들께 들려드린다. 온 성도가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찬양예배로 드리도록 한다.

박노철 목사 용역 폭력사태에 대한 서울교회 청년부 성명서

박노철 목사 측이 청년부원이라고 주장하는 폭력 행사 청년들은 서울교회 청년부원이 아닙니다.

저희 서울교회 청년부는 지난 2년 여 극심한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도리어 모이기를 힘써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해왔고 주일에는 각 부서에서 봉사를 하며 교회 섬기기를 힘써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9일 불법으로 동원된 용역들에 의해 서울교회 성도들은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고 그토록 지켜왔던 교회는 만신창이로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박노철 목사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이들과 불법으로 고용된 용역들이 교회 건물 2층부터 8층까지 완전히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노철 목사는 불법 동원한 용역들을 서울교회 청년부원들이라며 교인과 교계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곧 경찰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겠지만 이미 이 폭력사태를 최초로 보도한 JTBC와 사건 현장을 고스란히 담은 영상들을 통해 이들이 박노철 목사의 현장 지시와 그 추종자들의 협력 하에 교인과 교회를 대상으로 폭행을 가한 용역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회 청년부는 박노철 목사와 맹목적으로 그를 추종하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신앙의 양심을 되찾아 하나님과 성경 앞에 바로 서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예배당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거침없이 기물을 파손할 뿐 아니라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할 교회 내에서 휴먼까지 하는 등 신앙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이들을 서울교회 청년부원이라 거짓 증언하는 죄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지막 남은 신앙 양심에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또한 교회학교부터 십 수년 간 서울교회에서 성장하여 온 저희들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체 불명의 이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서울교회 청년부의 명의를 도용하는 거짓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저희는 처참한 폭행사건의 실체를 목도한 확실한 증인들로서 박노철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박노철 목사는 현재 교인들 및 교계와 세상을 상대로 불법 동원한 용역을 청년부원이라 주장하는 거짓된 여론 호도작업을 즉각 중지하라.

1. 폭행 피해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즉시 취하라.

1. 경찰은 용역동원 폭행사건에 대해 관련자 모두와 배후에 있는 자들이 엄중한 범의 심판을 받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잠언 6장 16~19절]

2018년 3월 27일
서울교회 청년 1·2부 임원 일동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김혜란 유영경 홍은경/노영한 조정옥/홍동기 이종윤/홍순복 김승록 유은경 김세호 이봉선 송인수/박한옥 김지수/김순진 유의숙 최봉애 송재현/선순례 최진이 조원영 이재운 이형희 곽선자 정준혜 권소희 한옥순 최숙희 유형석/제오복 이태승/정진영 서상근/김예환 박찬성/심명숙 이영재 이건희 문분순 전용순 차도훈/남태영 옥종호 심상필 유장열 송인덕 김은숙 안선광/고영숙 윤요섭/안재희6 정희순/ 송성식 무명 2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서울교회 홈페이지 복구

접속주소는
www.iseoulchurch.or.kr

박노철 목사측은 3월 12일 서울교회 홈페이지를 당회의 결의없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홈페이지로 변경하였다. 이에 멀티미디어부(부장 송인권 장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약 3,500여명의 홈페이지 회원들과 성도들이 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게될 것을 우려하여 임시 도메인(iseoulchurch.or.kr)을 개설하여 기존의 서울교회 홈페이지를 복구 및 운영하기로 하였다.

복구된 서울교회 홈페이지는 당분간 일부 기능(회원가입, 카페)이 제한되니 이점 성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포탈사이트에서 기존의 서울교회 도메인은 박노철 목사측 홈페이지로 연결되므로 "대치동 서울교회" 또는 "iseoulchurch"로 검색하여 본교회 홈페이지로 접속하기 바란다.





부활절 축시

골고다

안승민 집사 (청년부)

태양도
그 온전한 열기를
차마 내뿜지 못한
가파른
해골의 언덕

죄의 무게가
언덕을 향해
 옮겨질 때마다
핏빛으로 흘뿌려진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

자기 믿음을 과신하다
배신의 뜰 안에서 넘어진
베드로의 눈물과
민란이 두려워 끝내 손을 씻던
폰티우스 필라투스여!
그대는 진리의 질문을 남겨두고
흘로 뒷걸음 쳐 물러섰던가!

주여 나니이까 묻던
위선자의 키스는
은 삼십냥의 저울보다 가벼운
가연은 영혼의 무게에 실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광기어린 군중들의 함성속으로...

이제 여기
그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

피로 얼룩져 시선에 영겨붙은
가시 면류관
신의 손목을 내리칠 때마다
진동하는 땅과 하늘

그 피가 타고 흘러
땅속 깊이 파고 들어
온 우주의 침묵을 깨우고

마침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기까지

숨이 멎기전
짧게 번진 음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한 미소!

다 이루었다!
모든 거짓 신들의 신화가
영원한 종말을 고한 그곳

당빈 무덤
놀람과 경이가 함께 찾아온 새벽 빛
사이로
어둠을 부수고 걸어오며
선명히 서계신 그분은

나의 주
죽음을 정복하시고
스스로 계신 왕의 위엄으로

태초부터
존재했던 그 이름

오직 그리스도!



비전2020운동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손태현 집사 (비전2020운동본부)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비전2020운동본부(본부장 최광성 장로)는 군 선교에 앞장서 온 서울교회의 사명을 대내외에 다시 천명할 기회로 삼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월28일(수) 오후 6시 해군병과 의경 480 여명을 대상으로 진중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한국예비역기독교인연합회 서울강남지역 여호수아회의 협력 하에 진행된 이번 세례식은 고난주간 새벽 예배 후 오전 9시 교회를 출발하였 다음 날 새벽 1시에 도착하였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군함인 이지스함(육곡 이이함)과 해군박물관을 둘러보며 천안함 폭침 8주기를 맞은 해군이 굳건한 영해수호의지를 다질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일꾼들이 건재하는 한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지켜주시길 믿으며 국가 수호의 첨병 해군병과 의경들의 세례를 신병대 교육관 2층 교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돌아온 비전 2020과 권사회 임원 등은 교회 1층의 불빛을 보며 잘 끝냈다는 안도

감과 감사로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세례식에서 이종윤 원로목사님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세례받는 장병들에게 주셨는데,

첫째 매일 기도하기에 힘써라.
둘째 성경읽기를 매일 하라.
셋째 봉사할 것을 찾기에 힘써라.
넷째 땅 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는 내 용으로, 저희 모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례식후 연평해전에서 대승을 이끈 우리교회 박정성집사님(당시 해군제2함대사령관)은 격려사에서 '적의 동태를 정밀감시 분석하면서 위급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전투에 임해 대승을 이끌었다'는 격려사로 많은 훈련병들의 감동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교회는 비전2020운동을 실천하는 선도적 교회로서 군선교사 파송 및 자매 결연부대의 진중세례식 지원과 함께 군 입대자와 군 파송선교사들을 위한 도고를 매월 첫 주일 오후 3시30분 802호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정예화된 도고기도팀과 함께 모든 임역원이 한마음으로 군 복음화가 이 땅에 온전히 이뤄지는 그 날까지 여호수아 같은 충성과 헌신으로 그 사명을 다 할 것입니다.

군 복음화를 통하여 2020년까지 민족의 75%를 복음화하는 이 위대한 비전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위급한 때에 가진 세례식에 많은 염려와 기도를 해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성도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특별찬양 초대 글

최형열 장로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구원의 능력에 깊이 공감하고, 1803년 그의 최초의 종교음악인 오라토리오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를 단 14일 만에 작곡 하였다.

오라토리오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는 땀이 피가 되어 흐를 정도로 괴로워하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독백의 기도가 약 10분간이나 첫 곡에 나온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승리와 환희의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듯, 모든 고통과 죽음을 이겨내고 승리와 환희에 찬 삶으로 바뀐 것을 마지막 할렐루야 합창의 웅장한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다.

“음악은 하나님의 언어이다”라고 말한 베토벤은,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애끓는 사랑을 들려주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부활절 감사찬양으로 할렐루야찬양대(대장:최형열장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오라토리오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Ludwig V.Beethoven곡)”를 류충기 집사의 지휘로, 오르가니스트 차주연 집사, 피아니스트 김양연 집사,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가 함께 연주하며 솔로이스트 김위찬(예수), 이덕근(베드로), 안영주(천사)대원이 독창과 중창을 담당한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4월7일(토) 사랑의쌀 운동과 몽골 울란바타르대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개인전: 15교구 전광영 집사(김인숙 권사 부군) 4월 6일(금)~6월 5일(토) PKM 갤러리(종로구 삼청로7길 40) 02)734-9467, 오픈: 4월 6일(금) 오후 5시

■ 승진 및 취임: 13교구 서은석 집사(김미성 권사 부군) 소방 준감 승진 및 용인소방서장 취임

■ 금주의 식사: 주화인 권사 박수옥 권사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4월1일	주일	삼상 17:41-20:42		시 92-104	
4월2일	월	삼상 21-24		시 105-107	
4월3일	화	삼상 25-26		시 108-118	
4월4일	수	삼상 27-31		시 119	
4월5일	목	삼하 1-3		시 120-139	
4월6일	금	삼하 4-7		시 140-150	
4월7일	토	삼하 8-11		잠 1-7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모든 죄악과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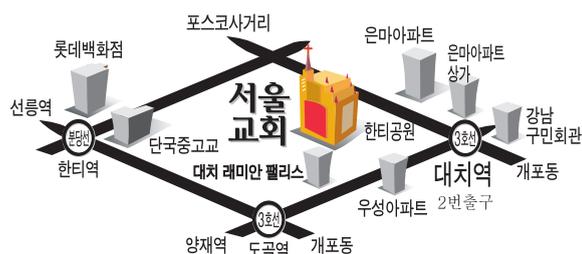
2. 교회 회복과 관련된 모든 송사가 법과 진실을 토대로 바르게 진행되게 하소서.

3. 4월 27일 있게 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비핵화를 통한 북핵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통시용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